

# 새로운 글로벌 금융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뉴 패러다임 모색

구 본 성 (선임연구위원, 3705-6364)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합의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대내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내적으로 건실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역동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금융회사는 전략적 차별화 및 인프라 역량의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계속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외환시장 구축과 대내외 투자수요의 충족 및 글로벌 금융자산 축적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국제화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의 경우 위기를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거시건전성 체계와 완충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형성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개혁 조치는 나름대로의 기본체계를 마련하였다. 신흥국에 대한 IMF의 결권 조정과 더불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한 합의, 특히 신흥국 관점의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개혁 조치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내 금융산업도 외환부문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금융부문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움직임에 못지않은 개혁을 진행해왔다. 대내적 차원의 금융개혁 조치는 글로벌 금융체계 개편과 맞물려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 형성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비한 지속적인 금융개혁의 추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시 고려사항과 향후 추진해야 할 경영 및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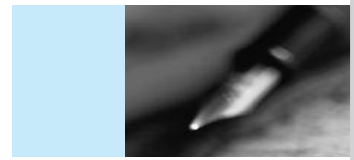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개혁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부문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우선 신뢰도 및 건전성, 안정성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부문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부문의 규모 또는 성장성이 안정화되고, 금융관행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감독 강화가 지속될 것이다. 즉, 금융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공적비용(public cost)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경제는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토대로 금융부문의 안정화와 개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합리화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금융부문의 개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경제는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토대로 금융부문의 안정화와 개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의 금융시장 개방은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통한 실물과 금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환부문의 안정화와 금융시장 참가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금융부문의 내실



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대외적 위상 및 경쟁력은 아직까지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경제의 글로벌화 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통한 장기발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선진국 금융부문의 합리화 추세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선진화, 글로벌화의 지속과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먼저 거시적 체계의 관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체제에 적합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와 규율체계의 강화, 선진국 금융부문의 합리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력(resilience)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금융시장 형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실물성장에 의해 파급되는 금융부문의 심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금융개혁 정책과 방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글로벌화의 진전을 병행할 수 있는 국제화 역량과 기반이 계속 제고되어야 한다. 외환시장 개혁을 통해 구축한 거시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가운데, 금융부문이 현지화 또는 글로벌 금융자산의 축적 등을 통해 국제적 금융위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감독 차원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은 새로운 경제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역할인 동시에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개방에 대비한 정책수단의 확보와 금융부문의 내실화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체제에 적합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금융시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글로벌화의 진전을 병행할 수 있는 국제화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거시적 완충력 확보, 역동성 제고, 국제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 거시적 및 시스템차원의 위기관리 기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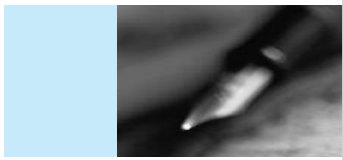
첫째, 민간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간의 차별화와 금융인프라 경쟁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업무기반, 수익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경쟁구조를 안정화하고 다양한 신규시장(new market) 창출을 통해 금융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정적 시장여건을 토대로 금융회사는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을 개선하고 대외적 위상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전체 금융회사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자산 축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채구조의 안정화와 함께 흑자가계 형성을 위한 금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인프라 역량 제고의 경우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외화부채의 적정화, 글로벌 경영관리체계의 마련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역량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자산운용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비한 업종별 핵심역량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 및 운영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역량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역량 확충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의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금융투자업무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및 업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진입 및 퇴출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수신시장의 경우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모델 구축이나 위험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외화부채의 적정화, 글로벌 경영체계의 마련에 초점을 둔 경영역량 확충이 요구된다.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과 자본시장에 의한 성장기회 모색과 시장규율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리에 초점을 계속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자본의 대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수요 기반의 다양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대기업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위험자본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선도적 (leading)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 자본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대외부문의 자본수요를 수용하고 흡수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조달 시장의 형성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실물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구조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국제화의 균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자금의 금융수요 충족과 글로벌 시장을 통한 해외 금융자산의 축적, 실물경제의 변화와 연계한 투자서비스 확대 등은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위상 제고 및 글로벌화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확고한 위기관리 기반을 갖추므로써 거시적 및 시스템 차원의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위기관리는 자체적으로 위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감내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기능적 규율체계에 의한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선진시장에 준하는 국제적 관점의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의 권리와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책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금융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금융정책 및 감독은 민간부문의 역동성과 완충력을 동시에 높임으로써 선진시장 수준의 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IF**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 구조 변화를 통한 국제적 자본시장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정책적 관점에서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체계구축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